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8월 2일(주일) 제1059호



오늘 하용조 목사 소천 4주기

지난 29일 기념관 및 채플 준공식, 추모예배 드려

오늘은 하용조 목사 소천 4주이다.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고 깊다. 온누리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8월 1일까지를 '하용조 목사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고인을 기억했다. 하용조 목사 기념주간 온누리교회 새벽예배에서는 하용조 목사의 설교영상으로 상영됐다.

7월 29일에는 하용조 목사 기념관과 채플관이 베일을 벗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하용조 목사 기념관 및 채플 준공식'이 거행됐다. 하용조 목사 가족들을 비롯해 온누리교회 리더십,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동경 요데라교회 미네노 타츠히로 목사 등 내빈 150명이 참석했다.

기념관과 채플은 건축가 Aaron Tan과 김준성 교수가 설계했다. 평생 피 묻은 십자가를 의지하며 앞만 보고 달려 간 하용조 목사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건물이다. 기념관에 가면 하용조 목사의 설교영상을 다양한 언어로 보고 들을 수 있다. 채플관은 150석 규모의 예배당과 작은 기도실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가 Aaron Tan은 "기념관과 채플이 하용조 목사님이 꿈꾸던 비전을 토대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저녁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하용조 목사 소천 4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추모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내가 기억하는 하용조 목사님은' 영상을 보고 그리움이 사 무쳐 눈물 흘렸다. <관련기사4-5면>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창립 30주년 엠블럼 공개



온누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이 모여 30년을 함께했

다는 의미에서 '30'과 'Onnuri'를 융합했다. 교회 창립 30주년인 2015년에는 예수님처럼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섬기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아웃리치 후기공모

온누리신문에서 여름 아웃리치 후기와 간증, 사진을 공모한다. 원고 분량은 A4 1장, 글자크기는 10포인트다.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로 (onnuriweekly@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온누리교회는 동성 결혼 합법화 반대!

반대 탄원서 서명 실시...16,110명 동참

온누리교회는 동성 결혼 합법화 운동에 확실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내 온누리교회에서 동

성결혼 인정 소송에 대한 반대 탄원서 서명을 실시했다. 16,110명의 성도가 동참했다.

영화감독 김조광수(50)와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31)이 2013년 9월 동성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 서대문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불복

해 서대문구를 상대로 지난해 5월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동성부부의 법적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소송의 심문이 지난 7월 6일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회가 동성 결혼 합법화 운동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섬김도 전염됩니다”

가족이 함께 같은 부서(서빙고 유치부) 섬기는 한명숙 성도네

여기 차세대 교사로 섬기고 있는 한 가족이 있다. 어머니는 서빙고 유치부 코치, 3남매는 같은 부서 교사로 섬기고 있다. 가족이 함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말하는 그들을 만났다.

표정부터 달랐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다. 사랑과 은혜, 축복의 말들이 끊임 없이 이어졌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섬김이 대견하다고 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이 본(本)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참 아름다운 가족이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유치부를 섬기는 한명숙 성도 가족. 왼쪽부터 둘째 윤진호, 큰딸 윤하영, 엄마 한명숙, 셋째 윤성호.

오늘 만난 주인공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명숙 성도와 그녀의 자녀 첫째 윤하영(21), 둘째 윤진호(20), 셋째 윤성호(18)다.

처음 서빙고 온누리교회 유치부를 섬긴 것은 첫째 윤하영 자매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와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 당시 부모를 따라 성지순례를 온 어린 자녀들이 많았다. 원래 아이들을 좋아했던 윤하영 자매가 자연스럽게 그들을 돌보게 되었다. 그만큼 그녀는 아이들이 좋았다. 윤하영 자매가 본격적으로 차세대 교사로 헌신한 데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지대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엄마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어요. 그때 엄마의 모습을 보고 나도 커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꿈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한명숙 코치 부부는 1992년부터 온누리 교회에 출석했다. 당시 신혼부부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었다. 동시에 영아부 교사로 섬기면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차세대대를 섬기는 모습을 봐온 자녀들도 아이들을 좋아하게 됐다. 어머니의 섬김이 자녀들이 차세대 교사를 꿈꾸게 만든 축매체가 되었다.

윤하영 자매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다. 그녀도 아이들을 좋아했고, 아이들도 그녀를 잘 따랐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와 김정순 목사가 유치부 교사로 섬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그녀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주일학교 교사가 됐다. 벌써 1년 반이나 됐다.

그때 서빙고 유치부 코치 자리가 공석이었다. 김정순 목사가 윤하영 자매에게 어머니께 유치부 코치로 섬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여쭙달라고 했다. 그날 윤하영 자매는 어머니께 함께 서빙고 유치부를 섬기자고 말씀드렸다.

“유치부 코치를 제안 받고 처음에는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두렵고 부담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부름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지난해부터 서빙고 유치부 코치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녀가 함께 서빙고 유치부를 섬기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유치부는 상대적

으로 남자 교사가 부족하다. 남자 교사의 손길이 절실했다. 이번에도 윤하영 자매가 나섰다. 셋째 남동생에게 유치부 교사로 섬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셋째 남동생 윤성호 형제도 아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쉬고 싶고, 놀고 싶을 텐데 도와달라는 부탁에 흔쾌히 응해줬어요. 도와주면 맛있는 간식도 주겠다고 구슬린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웃음).”

셋째 윤성호 형제는 딱 한번만 도와주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유치부 교사로 섬김을 이어가

는 마음으로 유치부에 왔다. 그런데 둘째도 어김없이 유치부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말았다. 도저히 헤어 나올 수 없는 그 매력에 빠져 지금도 유치부를 섬기고 있다.

그렇게 어머니와 삼남매가 서빙고 유치부를 섬기게 되었다. 첫째 윤하영 자매가 뿌린 섬김의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

함께 섬기면서 참 많이 달라졌다

서빙고 유치부를 섬기면서 보고 싶었던 사람

**“유치부 없는 삶은 상상이 되지 않아요.
아이들을 만나는 하루가 일주일일 사는 힘을 줘요.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만나면 눈 녹듯 사라져요.”**

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한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오게 되었는데 유치부 선생님들께서 다음 주에도 또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계속 오다보니 지금까지 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부탁도 부탁이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귀여운 모습에 매료된 것이 가장 큰 이유 같아요.”

그렇게 큰딸과 어머니에 이어 막냇동생까지 서빙고 유치부를 섬기게 되었다. 이제 둘째가 남았는데 기회가 찾아왔다. 얼마 전 있었던 유치부 행사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다. 둘째 동생 윤진호 형제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올해는 거리감이 없었다.

둘째 윤진호 형제도 셋째처럼 한번만 도와준다

과 다시 만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섬김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둘째 윤진호 형제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와 유치부에서 재회했다. 윤진호 형제가 유치부에서 적응하는데 그 친구가 큰 힘이 되었다.

셋째 윤성호 형제는 친구를 유치부 교사로 데려왔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유치부 교사로 섬길 것을 권유했고, 그 친구의 어머니도 윤성호 형제가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다.

이외에도 가족이 함께 유치부를 섬기면서 달라진 점이 참 많다. 어머니 한명숙 코치는 아이들을 섬기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 했다.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다고 했다.

“제 아이들을 어린아이로 봤는데 차세대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자기자

녀들도 잘 돌볼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윤하영 자매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시간이 주어졌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동생들과 친했다. 더 많은 시간을 동생들과 보내고 싶어 했다. 그런데 중학교를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진학하다보니 그 좋아하던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어졌다. 그런데 함께 유치부 교사로 섬기다보니 이제는 그 좋아하는 시간을 더 의미 있고, 풍성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서로 공감하는 주제가 없어 이야기가 잘 안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함께 유치부 교사로 섬기다보니 이제는 공통분모가 생겼어요. 동생들과 전보다 더 친밀감이 느껴져요.”

둘째 윤진호 형제는 신앙생활에 더 충실해졌다고 한다. 평소 대학부에 다니면서 지각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유치부를 섬기고 나서 생긴 변화다. 그는 교회의 다른 부서에서도 섬기고 싶다고 했다. 성경공부를 하고 싶다는 계획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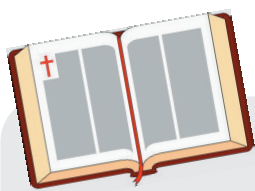
셋째 윤성호 형제는 유치부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게 됐다고 한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유치부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했다.

윤하영 자매가 서빙고 유치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제 서빙고 유치부 없는 삶은 상상이 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잊히지 않거든요. 그 아이들을 만나는 하루가 일주일일 사는 힘을 줘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만나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어머니 한명숙 코치가 한마디 거들었다.

“이제 남편만 남았어요. 온 가족이 서빙고 유치부를 섬기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보라, 얼마나 큰 사랑인가!

요한일서 3:1~10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변화되십시오. 죄로부터 회복될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가 부르심을 받은 주일이 되면 여러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하 목사님과 라이온킹이라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 목사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유명하고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음악과 무대 모두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달 후에 하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밤 12시쯤이었습니다. 은누리교회에서 OMC(부흥축제)를 하는데 뮤지컬 라이온킹 무대처럼 만들고 싶다면 서 그 무대를 제작하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무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사역이 탁월하기를 원하는 목사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라이온킹은 애니메이션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만든 작품입니다. 무파사라는 사자 왕이 동물들을 잘 통치해서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아들 심바에게 동물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바는 철이 없고 놀기만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에 무파사의 동생인 스카라고 하는 사자가 반역을 해서 무파사를 죽게 합니다. 스카는 심바에게 아버지가 죽게 된 책임을 물어서 왕국에서 쫓아냅니다. 그 사이 동물의 왕국은 완전히 폐허로 변했습니다. 잘못된 통치자의 권력과 탐욕으로 동물의 왕국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심바는 고향소식을 들었지만 자신의 과거를 직면한다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서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무파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심바는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게 되면서 동물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심바가 왕국을 떠나 방황하고 있을 때 죽은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네 안에 살아있다.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나를 잊은 것이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이 대사가 계속 제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를 현대어로 표현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무능력하고, 믿음이 후퇴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축복

요한일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요일 1:4).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요일 2:12).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요일 5:13).

이 글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를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기쁨이 넘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요일 3:1).

요한은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감격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끓어 오르는 감동과 감격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주셨는지를 다시 깨닫고, 감격해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동적인지를 다시 한 번 음미해야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이런 진단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감동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메마른 사막처럼 눈물도 마르고, 감동도 마른 시대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 즉, 하나님의 자녀 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감동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팔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고의 효도, 최고의 영광, 최고의 찬양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날 설문조사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반기 싫어

하는 선물 1순위가 건강식품입니다. 하도 건강식품을 많이 받아서 싫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자녀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굴 보여주는 것보다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당신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연약하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자랑스럽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가 “당신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자랑스롭습니다. 당신이 나의 부모님인 것을 정말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큰 효도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효도, 최고의 영광, 최고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창조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인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라”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롬 5:8).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롬 5:10).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가 아니라 원수 되고, 죄인 되고,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었던 친밀한 사랑을 우리도 나눌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부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사랑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속성 중에서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주만물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되어야 하고 확증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말로 받아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증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인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공평, 테러 등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라.”

하나님은 그 어떤 악보다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세상을 덮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됨에 차이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 됨에 차이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연약함이 있고, 불의함이 있고,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13면에 계속)

하용조 목사 소천 4주기 특집

열정과 비전의 사람, 하용조 목사

기억이 하나도 바래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하용조 목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4년이 흘렀지만 그의 음성은 아직도 성도들 마음속에 살아있다. 그만큼 하용조 목사가 그림고 또 그림다.

지난 7월 29일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하용조 목사 기념관과 채플이 준공되고, 소천 4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운 하용조 목사를 기억했다. 그의 흔적이라도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가웠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하용조 목사를 이번에는 기록으로 만났다.

/ 편집자 주

하용조 목사는 청년 시절부터 남달랐다. 청년 시절 그는 역사와 문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이 많았다. 책을 좋아하는 젊은 사색가였다. 삶의 의미, 실존, 생의 방향을 깊이 묵상하던 중 한국대학생선교회(C.C.C)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하용조 목사의 별명은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다. 그만큼 수많은 병마와 싸웠다. 대학 생 때 앓은 폐결핵을 시작으로 만성간염, 당뇨, 고혈압이 발병했다. 심근경색, 7번의

간암수술, 심장수술, 투석

등 수많은 질병이 40

년 이상 그를 괴롭혔

다. 병이 인생의 동반

자 같았다. 하지만 그

는 병마에 굴하지 않

았다. 병상에 있으면

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이 주

신 비전을 발견했다. 병

마와 싸우면서 연약해진

육체는 그가 하나님 나라

를 더욱 소망하게 만들었

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축매제가 됐다.

“내가 아플 때마다 교

회는 성장했다. 고통스

러울 때마다 영적인 충

만을 경험했다.”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와 성도들

하용조 목사는

신학생 시절부

터 영화배우, 텔

런트, 가수 코미

디언 등 수많은

연예인을 전도했다. 당시 아

무도 돌아보지 않던 연예인

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

다. 당시 연예인 전도는 황무

지나 다름없었다. 하용조 목

사가 뿌린 그 씨앗이 한국 최

초로 ‘연예인교회’로 열매

맺었다.

하용조 목사 부부는 1981년

안식과 기도, 학업을 위해 영

국으로 떠났다. 영국에서 하

용조 목사에게 강력한 영향

을 준 사람을 만난다. 그가 바

로 존 스토티트 목사다. 하 목사는 그와의 만남을 통

해 사도행전적 교회의 그림을 그려나갔다.

1985년 귀국한 하용조 목사는 12가정과 함께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그 작은 모임이 온누리교회의 초석이다. 작은 성경공부 모임에서 시작된 온누리 교회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성장했다.

하용조 목사는 무엇보다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또 강조했다.

“말씀은 선하고 거룩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하

나님의 말씀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

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요, 등불이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한국의 10대 설교가 하용조

하용조 목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이 바로 설교다. 하용조 목사는 주일설교, 새벽기

도회, 세미나, 해외 특강 등 평생 동안 1만 번 이상

의 설교를 했다. 그는 탁월한 설교능력으로 2005

년 한국교회사학연구원에서부터 ‘한국의 10대

설교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용조 목사는 수상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면 빨리 성도들

과 나누고 싶어서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 설교를 만들어주신 분은 교인들이십

니다.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들어주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는 복음적인 설교에 집중했다. 그의

설교주제는 명확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십자

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었다. 하용

조 목사의 설교는 예수님으로 시작해 예수님으로

끝이 났다. 십자가와 복음이 중심이 된 설교는 많

은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은혜가 되었다.

하용조 목사는 설교에 비전을 담았다. 잘 알다시

피 하용조 목사는 설교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

겼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신나고, 훌륭하고 감격

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은 고통 중에도 영광이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선교

라고 강조했다. 하용조 목사의 설교를 강조하는

설교에 감동을 받아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1200명이 넘는다.

성도들이 하용조 목사의 설교를 좋아하는 이유

가 무엇이었을까. 설교에 위로와 희망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다친 성도들을 말씀으로 안아주고, 위로했다. 고

난과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들은 사랑으로 품어주

었다. 하용조 목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기를 극복하라고 했다.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라고 응원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를 잊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베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면 새벽 3시에 물 위를 걸어서라

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

나님이요, 주님입니다.”

보석보다 빛나는
두란노서원, CGNTV, 러브소나타

하용조 목사는 병상에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던

중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을 세우고 제

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병상

에서 일어난 1981년 12월 두란노서원을 창립했다. 지

금까지 두란노서원은 수천여 권의 단행본을 출판

했다. 대한민국의 대표 큐티지<생명의삶>, 평신도

를 깨우는<빛과소금>, 목회자를 위한<목회와신학>

등 7종 잡지를 발간하고 있다. <생명의삶>은 영어

판, 일본어판, 중국어판, 스페인어판 등으로 번역되

어 전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국내외 비전교회와 전 세계 선교사,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한 선교 전문 방송 CGNTV가

2005년 3월 개국했다. 요양차 일본에 갔던 하용조

목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다. 바로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다. 2009년 7월 8일 일

본기독교선교 150주년 기념대회에서 CGNTV와

러브소나타의 영향력을 그는 이렇게 평가했다.

“2년 동안 CGNTV와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

교회와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전에는 없었던 연합과 일치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과 일치와 부흥의 시작입

니다.”

2007년 오키나와에서 시작된 러브소나타는 현

재까지 일본 22개 지역에서 열렸고, 일본인 7338

명이 참석했다. 하용조 목사의 일본을 향한 사랑

이 러브소나타로 집화되었고 그것이 일본 부흥

의 시작이 되었다.

하용조 목사는 한 평생을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

꿨다.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다.

하나님과 교회, 성도를 향한 하용조 목사의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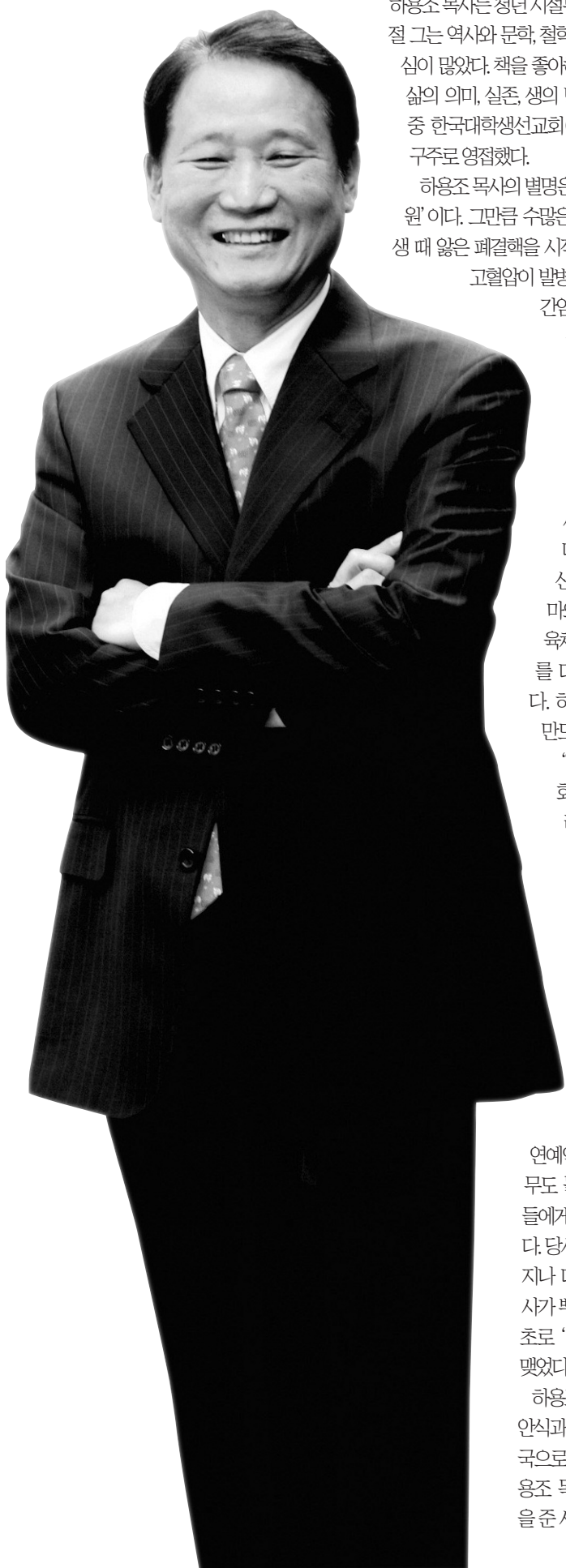
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우리를 기쁨 속

에 그 사랑이 아직도 살아 있다. 영원히 잊히지 않

을 것이다.

*이 글은 하용조 목사 저서 및 설교집, 온누리신

문에 기록된 내용을 발췌 요약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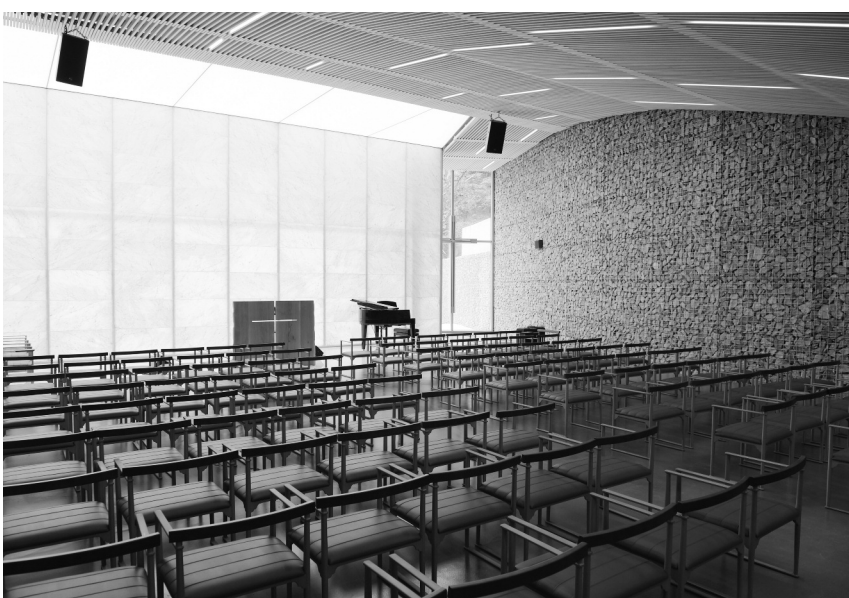
하용조 목사 기념관 및 채플

십자가 지나 천국을 향하여

“하용조 목사 기념관 입구를 따라 걸으면 연대별, 언어별로 하 목사의 주옥같은 메시지를 볼 수 있다. 하용조 목사 기념관 끝 자락에는 의자가 놓여있다. 그 의자에 앉아 묵상하고 있으면 하용조 목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차창에는 십자가 길이 보인다.

십자가를 지나 계단을 오르면 하용조 목사 기념채플이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다 내려다보면 십자가를 지나 천국으로 향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하용조 목사 기념관과 채플이다.”

/ 건축가 Aaron Tan



1. 하용조 목사 기념관 입구
2. 기념관 내부
3. 묵상의자
4. 십자가 길
5. 하용조 목사 기념채플 입구
6. 내려다 본 십자가의 길
7. 하용조 목사 기념채플 내부

남양주 온누리교회

경북 성주 아웃리치

이진택 집사
(남양주 진접다락방장)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지난달 24일부터 2박3일 동안 경북 성주에 있는 성산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성산교회는 해발 350미터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 우리가 진행한 사역은 지붕공사, 종탑과 정자 공사, 교회 팻말 페인트 도색작업, 시아를 가리고 있던 나무 가지치기 작업이었다. 아웃리치 하루 전 선발대 4명이 출발했다. 다음날 새벽에 공사자재를 받아 알짜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근무 중인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걱정이 됐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비는 그칠 줄 몰랐다. 일기예보를 보니 경북 성주지역은 우리가 아웃리치를 가는 날 오전에 비와 구름이 낀다고 나왔다. 전날 출발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정재성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감사하게도 성주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미 작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드디어 아웃리치 가는 날. 두 번째 팀이 출발했다. 2박3일 동안 먹을 식사자재를 준비하고 출발하는데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자동차로 2

시간을 달렸는데도 비는 멈출 줄 몰랐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시 정 집사에게 전화했다. 정 집사는 비가 오지 않으니 빨리 오라고 했다. 또 다시 하나님께 감사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전날 도착한 공동체 식구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와 김정훈 순장이 마무리 작업을 도왔고, 오후 6시경 드디어 근사한 새 집이 완성되었다. 저녁식사를 하고 성산교회 목사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내일 할 일을 점검했다.

아웃리치 둘째 날 종탑과 정자 공사, 교회 팻말 페인트 도색작업, 나무 가지치기 등을 실시했다. 페인트 도색작업은 녹을 벗겨내고 그 위에 칠을 하는 작업이었는데 빨리 끝날 것 같았던 작업이 쉽게 끝나지 않았다. 머리와 옷, 신발 등에 페인트가 묻었다. 날씨는 더웠지만 다행히 선한 비람이 불어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었다.

아웃리치 마지막 날은 주일이었다.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어르신들이 참 순수해보였다. 어르신들의 아려한 신앙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르신들이 우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감사하다고 하셨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도 찡했다. 성산교회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사역과 십이 있는 풍성한 휴가



하나님 은혜로 수월하게 끝난 교회 지붕공사.

위해 묵과부침개, 오이냉국 등을 정성스럽게만 들어주었다. 감사할 따름이었다.

돌아오는 차안에서 2박3일 동안의 아웃리치를 돌아보았다. 우리가 지붕을 공사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해를 가려 주셨다. 페인트 도색작업을 할 때에는 맑은 날씨를 주셔서 페인트가 빨리 마르게 하셨다. 시원한 비람을 주셔서 우리가 페인트 도색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셨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계곡에서 보낸 시간은 우리뿐만 아니라 성산교회 목사님 가족

들도 회복시켰다.

이번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다. 출발 당일에 일이 생겨서 함께 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웃리치에 참가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물 떠온 하인만 알듯이 아웃리치에 참가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이번 아웃리치는 사역과 십이 있는 풍성한 휴가 같았다.

의료선교팀 CMN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

윤상엽 팀장
(CMN 의료사역팀장)

온누리 의료선교팀(CMN)이 올해도 여김없이 청진기 들고 아웃리치를 떠났다. 8개 현장사역팀이 참가했다. 마하임팀과 BEE팀은 남아시아 B국으로 연합아웃리치를 다녀왔다. CMN 리더십,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으로 꾸려진 의료진, 미용팀, 일반 봉사자들이 함께 했다. 대규모 의료선교팀이었다.

남아시아 B국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했다. 그중에서 얼마전 다리를 절단한 38살의 젊은 임종을 만났다. 그 환자가 내게 묵직한 아픔과 여운을 남겼다. 그 환자는 석 달 전 다리뼈에 생긴 암 때문에 다리를 절단한 상태였다. 그런데 무릎 뒤쪽과 사타구니에 커다란 덩어리가 있는데 다시 암이 퍼진 것인지 궁금해서 우리를 찾아왔다.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오는 가족들에게 나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었다. 수술 받은 병원을 다시 방문해 정밀 진단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답답한 마음에 절단 수술을 한 이후에 왜 병원에 가지 않았냐고 물었다. 돈이 없어서 갈 수 없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방사선 치료나 항암치료가 이곳 남아시아 B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근처 한국 KOICA에서 지어준 병원에 MRI 기계가 있지만 관독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환자께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영양제와 철분제를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나는 얼마남지 않은 그녀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무작정 선교사님 손을 붙잡고 환자 앞으로 모시고 왔다. 진료소 뒤편에는 총을 든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남아시아 B국은 공식적으로 포교나 성경 배포가 금지된 나라다. 사영리같은 교회를 사 용해 체계적으로 예수를 전할 수도 없는 곳이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환자 손을 잡고 “제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다른 선교사님들과 환자의 어린 딸과 남편이 곁으로 다가왔다. 어린 딸이 울고, 남편도 벽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다. 그 모습을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 그 환자를 돌려보내고 나는 한동안 일의 손에 잡히지 않았다. 창틀에 뒤돌아앉아 먼산만 쳐다보았다. 그들에게 의료로 도움이 되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 환자께 나는 의사로 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차라리 한국에 태어나게 해서 제대로 된 치료나 받게 해주시던가. 예수를 알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지! 제게 왜 이런 환자를 보여주십니까? 의료선교팀이 해마다 10여 개 나라로 아웃리치를 가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건가요?”

나는 밤새 뒤척였다. 그러다 셋째 날 아침이었다.

4박5일 동안의 천국잔치



CMN 아웃리치팀을 찾은 현지 환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의료진 설명을 듣고 있다.

너무나 멋진 자연을 바라보고 있으니 자연스레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라는 찬양이 흘러나왔다. 그동안 치료했던 환자들을 떠올렸다. 한국 같으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 제대로 된 붕대와 거즈가 없어 고름이 흐르는 상처들, 그럼에도 웃음 가득한 얼굴들이 떠올랐다. 너무나 아름다워 눈물이 다나올 것 같은 나라에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감히 내가 기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아픔이 밀려왔다.

“주님, 당신의 마음은 저보다 더 아파하시는군요.

이런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군요. 복음의 출발은 이렇게 가슴 아픈 것이었군요.”

아웃리치 마지막 밤, 우리는 4시간에 걸쳐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받은 은혜와 느낌을 나눴다. 서로에게 감사하며 은혜와 간증을 나눴다. 함께 참여한 몇몇 비기독교인 자매들도 우리들의 나눔에 크게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이번 아웃리치는 단순한 추억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한파로 전국 백성들과 함께 한 4박5일 동안의 천국잔치였다.

강남A공동체

천안 대평교회 아웃리치



김종호 집사
(소망다락방)

5월 운영회의에서 황재명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았다. 온누리교회가 앞으로 섬겨야 할 곳은 농어촌의 작은 교회라고 힘있게 목소리 높이시던 음성이 지금도 내 귀에 울린다.

지난 19일 강남A공동체가 천안 대평교회를 향해 출발했다.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닌데도 여기서는 느끼지 못하는 맑은 공기와 신선함이 가득했다. 내 몸이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산길을 돌고 돌아 마침내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교회에 도착했다. 여기가 바로 천안 대평교회다. 조그마한 농촌교회에 달린 십자가가 우리를 반겼다. 고향 마을을 찾은 것처럼 정답고 포근한 느낌이 참 좋았다. 믿음다락방과 소망다락방 성도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대평교회 황규관 담임목사님이 활짝 웃으며 우리 일행을 반겨주셨다. 천안 대평교회 성도들과도 기쁜 마음으로 인사했다.

대평교회 안으로 들어섰다. 교회는 아담하고 깨끗했다. 포근한 교회였다. 대평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렸다. 준비한 특송도 불렀다. 황규관 목사님은 힘든 농촌교회를 위해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 주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럽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우리의 방문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황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지만 한편으로는 짝한 마음이 들었다. 마치 호된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딸의 집을 방문해 위로하는 친정어머니가 된 것 같았다.

“진정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닌가!”라고 설교하면서 감격하는 황 목사님은 이 교회를 10년 넘게 섬기고 계셨다. 목사님의 얼굴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의 고충이 느껴졌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입이 돌아가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지금도 입 주변이 불편해 보였다.

황 목사님과 대평교회 성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나는 내 교회만 잘 섬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대평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힘들고 외로운 농촌교회에 힘을 주고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기도하던 중에 “네가 참 잘 하였구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성령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큰 기쁨과 깨달음을 주신 것이 분명하다. 내 안에서 감사한 마음이

“네가 참 잘 하였구나”



대평교회 주일예배에서 아웃리치 팀원들이 특송을 선보이고 있다.

솟아났다. 대평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나서 친교 시간도 가졌다. 우리 아웃리치 팀원 23명, 대평교회 성도 17명이었다. 그렇게 모인 40명이 우리가 준비해간 도시락을 나눠먹으며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대평교회 성도들에게 건강 상담이 도움이 된 것 같다. 우리 아웃리치 팀원 중에 의사가 3명이 있었다. 알다시피 농촌에는 대부분 노인들이 살고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건강 상담을 해드리고 영양주식을 놓아주

었다. 그들을 위한 기도도 빠뜨리지 않았다.

열악한 환경에서 귀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대평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작은 섬김과 기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동네 주민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싶다.

대평교회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이 섬김이 지속되기를 다짐하며 기도했다. 귀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과천의왕공동체

보은 회남교회 아웃리치



이삼형 집사

과천의왕공동체 60명이 충북 보은군 조곡리에 동지를 둔 회남교회에 도착했다. 회남교회에서 우리는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전했다. 우리 공동체가 아웃리치에서 다문화가정을 섬긴 것은 지난해부터다.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다. 아주 작은 면소재지인 회남마을에는 다문화가정이 많다. 열 가정이 넘는다.

올해 초에는 지난해 여름 아웃리치에서 인연을 맺은 예금란 자매의 친정인 베트남 호치민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오기도 했다. 예금란 자매의 친정동네에 성도들이 마련해준 학용품과 옷가지, 가전제품 등을 전달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선물했다. 우리들의 마음도 전했다. 열매도 있었다.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셨다. 당시 통역을 맡은 루안 형제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는 이번 아웃리치에도 참가했다. KTX와 시외버스를 갈아타며 부산에서 회남까지 와 주었다. 이번 아웃리치에 그가 함께 해주니 힘이 되었다.

이번 아웃리치의 하이라이트는 베트남 아낙들을 초청해 한국요리를 가르쳐준 ‘만나 요리스쿨’이었다. 예금란·양개석 부부를 비롯해 모두 아홉 가정이 참가했다. 그녀들은 시어머니를 위해 발에 나가 이삭을 주워 온 룯과 같이, 가족들을 위해 낫설고 아색한 초청의 자리에 나와 준 착하고 예쁜 이 땅의 룯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집에 시집 온 며느리다. 진심으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했다.

낯선 땅으로 시집 온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였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빗장을 하나 하나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우리가 준비한 만나 요리스쿨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살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나 요리스쿨을 통해 그녀들을 마음껏 안아주고 함께 웃고, 어울려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보았다. 비록 모든 것을 다 전할 순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 이 땅의 룯들을 기억하고 계시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만나 요리스쿨의 또 다른 수확이 있었다. 바로 부인들을 따라온 남편들이었다. 예금란 자매의 남편 양개석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시킨 것이 매우 큰 감동이었다. 영접기도 한 다음날 부부가 같이 교회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회남의 베트남

아웃리치와 육개장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초청한 ‘만나 요리스쿨’

다문화가정은 이 땅의 마중물이며, 화남을 넘어 베트남 땅에까지 신선한 바람을 불려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아웃리치 마지막 날 식사로 육개장을 준비했다. 육개장이 흡사 다문화가정을 잘 융화해주는 것 같아서였다. 육개장은 다양하고 개성 있는 식재료가 서로 어우러져 독특하고 감칠맛을 선사하는 음식이다. 다문화가정은 개성과 다양성을 지닌 타국의 형제자매들이 만나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참 맛있는 아웃리치였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포근함에, 열큰하고 뜨거운 국물도 마실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요리하셨다는 짧은 일정 동안 여러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각각의 재료들을 다듬어 어우러지도록 요리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맛있는 아웃리치와 육개장을 맛있게 하셨다. 맛이 좋다. 다음에는 좀 더 잘 끓여진 아웃리치와 육개장을 만드실 하나님이 기대된다. 분명 지금보다 더 깊은 맛이 날 것이다.

강촌공동체

일산 사랑의 집 아웃리치

박수미 성도
(평강6순)

강촌공동체가 지난달 18일 다락방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행선지는 일산에 있는 사랑의 집이었다. 사랑의 집에는 29명의 자폐 및 지적장애 형제자매들이 함께 살고 있다. 7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나이대가 다양하다.

사랑의 집 형제자매들과 한방에 둘러앉아 예배를 드렸다. 이준호 목사님이 사랑의 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인우의 이름을 손바닥에 써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다.

“손바닥에 써놓은 이름은 지울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새긴 이름은 지울 수 없습니다.”

과주 임직각으로 나들이를 갔다. 나는 박경희 순장님과 함께 인우, 인수, 민수를 태우고 갔다. 숙소에 남아 있는 공동체 식구들은 저녁식사 준비와 청소를 했다.

우리가 아웃리치를 간 시점은 전국이 메르스로 인해 야외활동과 외부 봉사활동이 뜸한 때였다. 아이들이 오랜만에 받아보는 섬김이라 그런지 무척 행복해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나와 함께 임직각으로 나들이를 간 아이들은

장애 정도가 심했다. 임직각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겼다. 한 아이의 돌발행동으로 한 집사님이 얼굴을 다쳤다. 행동이 통제 되지 않는 아이들을 혹시라도 잃어버리거나 다치게 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손을 꼭 붙잡고 다녔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 높이 날고 있는 연과 연못에 살고 있는 소금쟁이를 보았다. 준비해 간 간식을 들판에 앉아서 나눠 먹으며 숨바꼭질도 했다. 짧은 나들이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려는데 한 여자아이가 돌아가기 싫은지 땅에 주저앉고 발버둥 쳤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 두 명의 선생님이 겨우 그 아이를 진정시켜 차에 태웠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일이 있었다. 난감한 상황도 많았다. 아홉 대의 차량이 무사히 사랑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다.

돌아가는 길에 내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한번도 꺼낸 적이 없었는데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함께 아웃리치를 간 공동체 식구들을 걱정시키기 싫었기 때문이다.

저녁식사를 할 때였다. 한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은 집사님이 내 휴대폰을 들고 계셨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다



사랑의 집 형제자매들과 행복했던 나들이.

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다. 2년 전 두 아들과 지인 몇몇과 함께 세곡동에 있는 다니엘 복지관으로 봉사를 간 적이 있었다. 지속적으로 섬기던 곳은 아니었지만 다니엘 복지관 아이들과 함께보낸 시간은 참 많이 행복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기쁨이 사라진 것처럼 제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슬프셨나요? 세상 사람의 잣대로는 그 아이들이 부족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제가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불쌍한 삶을 살고 있지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은 내게 눈물과 사랑, 긍휼한 마음을 주셨다.

“딸아, 조금 더 나누며 살아라.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 이것밖에 안되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다.

한강공동체

김포M센터 아웃리치



유영수 성도

“주님, 온 열방 중에 한 나라 정도는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드려지는 나라가 있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가 캄보디아가 되게 하소서”

한강공동체 김포M센터 아웃리치는 이곳을 섬기다 선교사로 헌신한 어떤 분의 기도가 떠오르게만 들었다. 지난달 20일 아침, 새벽부터 잠을 설친 나는 알 수 없는 설렘으로 잔뜩 긴장해 있었다. 오늘 캄보디아 청년들과 함께 찬양팀으로 예배의 문을 열기로 했는데 그때문인 것 같다. 그 어느 때보다 예배에 기쁨 부으실 성령님의 역사가 기대됐다.

오후 2시, 김포M센터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캄보디아 청년들이 명동 비폴로레스토랑에 모습을 보였다. 아제 김포M센터를 미리 방문해 인사를 나눴던 터라 어색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청년들이 반갑고 익숙하게 다가왔다.

중보기도모임을 하면서 들은 캄보디아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기도제목들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가져할 곳이 없어 교회 한편에서 기거하고 있는 씨루 형제, 어깨를 심하게 다쳤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매일 고된 일을 해야 하는 위스나2 형제 등... 하나같이 가슴 아픈 현실들이 그들을 옥죄고 있었다.

청년들의 자기소개 시간에 들어보니 캄보디아에서 왕립대학을 졸업한 수재인데 자국에 일자리가 없어 머나먼 한국 땅까지 와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형제들도 몇몇 있었다. 그 청년들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애처로웠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그들이 안쓰러웠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비폴로레스토랑 2층 홀에서 찬양하는 그들의 표정에서는 그 어떤 근심과 걱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주님이 자신들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소망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참 평안에 보였다. 천국에서 예배드릴 때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가 각기 그 민족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할 텐데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우리는 미리 맛볼 수 있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1절은 한강공동체 기쁨다락방 식구들이 한국말로 2절은 캄보디아 청년들이 그 나라 말로 다시 찬양할 때는 두 언어로 동시에 불렀다. 그 감격은 여느 찬양예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상이었다.

캄보디아 형제들의 특수도 있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과 ‘그 사랑 얼마나’를 어설픈 한국말로 찬양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다락방 식구들 몇몇은 눈물을 흘렸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생기는 어색함을 시원하게 날려준 레코리에

미리 맛 본 천국예배



어설피지만 아름다웠던 캄보디아 형제들의 한국어 찬양.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기쁨2순 최창진 순장의 섬김이 돋보였다. 운영하고 있는 비폴로레스토랑을 흔쾌히 빌려주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까지 푸짐하게 대접해 주셨다. 그의 섬김이 있었기에 이날 캄보디아 청년들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는 평소에도 1층 공간을 지역교회 예배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사업장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고 있다.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다락방에서 마련한 작은 선물을 건네주며 포옹과 악수로 아쉬운

작별을 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단 이틀간의 섬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미래와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노라.”

8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을 청년들의 연합수련회와 8월 16일 대부도에서 치러질 연합세례식에도 성령의 임재와 넘쳐흐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찬양전도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김포M센터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할 것이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베트남 여성들의 상징
‘아오자이’은 전도사 가족
(온누리M센터 베트남예배)

‘아오’는 상의, ‘자이’는 길다는 뜻



18세기 아오자이(좌)와 여학생의 교복 하얀 아오자이(우).



‘아오자이’는 베트남 여성들의 대표적인 전통의상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해 아오자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오자이에서 ‘아오’는 ‘상의’를, ‘자이’는 ‘길’을 뜻한다. 베트남의 우아한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는 베트남 국민들 특히 여성들에게 의미가 많은 옷이다.

아오자이는 18세기부터 착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이야기는 베트남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아오자이는 베트남을 상징하는 전통의상이다. 베트남 국민들은 아오자이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원래 아오자이는 남녀 모두가 착용하던 의상이었다. 하지만 프랑스의 영향으로 베트남 남성들은 더 이상 아오자이를 착용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여성들만 아오자

이를 즐겨 입는다.

아오자이는 왕복에서부터 유래되었다. 레 로이 왕이 전쟁에 참전할 당시 아오자이와 비슷한 모양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한다. 베트남 국민들은 그를 기념하기 위해 비슷한 모양의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것이 아오자이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과거 남성들이 입는 아오자이는 권력을 나타내 주었다. 아오자이의 품질에 따라 교육계급도 나타났었다. 국가행사나 축제에는 반드시 아오자이를 착용해야 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전쟁 당시, 베트남 남성들은 아오자이를 입고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꼈다. 그때부터 남성들은 더 이상 아오자이를 착용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서양 스타일의 옷을 입었다. 셔츠와 바지,

넥타이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베트남 남성 대부분 아오자이를 입지 않는다. 아오에 입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끔 남성들도 패션 또는 재미로 아오자이를 입는다. 과거만큼 아오자이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스러움과 친절함 나타내는 ‘아오자이’

아오자이는 여성의 미(美)를 여러 방면으로 뽐내 주는 옷이다. 과거 아오자이는 굉장히 단순한 의상이었다. 베트남 봉건제도 당시 아오자이는 여성의 몸을 가리고 보호해주는 역할만 했었다.

지금의 아오자이는 베트남 여성들의 여성스러움과 친절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베트남 여성들의 고운 자태를 뽐내주기도 한다. 의복이 간편화 되면

서 베트남 여성들도 서양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지만 중요한 행사나 축제에 갈 때에는 여전히 아오자이를 입는다.

아오자이는 여학생 교복과 우체국, 은행, 공항 등에서 제복으로도 사용된다. 학생이나 미혼여성에게 청결과 순수함을 나타내주는 아오자이는 필수다.

베트남에서 여자 중고등학생들은 하얀색 아오자이를 착용해야 한다. 지금도 베트남에 가면 하얀색 아오자이를 착용한 학생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하얀 아오자이를 착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오자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모양과 색깔에 맞춰 자유롭게 아오자이를 즐겨 입고 있다.



목회칼럼 김영창 목사(GIL공동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서 받는 불편과 불이익은 축복이며, 은혜다

3포 세대. 지금 2080세대가 취업난과 팍팍한 삶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5포 세대를 넘어 7포 세대는 말이 나왔다. 5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7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직업을 포기했다는 의미다. 취업난으로 인해 포기하는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신조어다. 그런데 이제는 7포 세대를 넘어 건강과 외모를 더해서 9포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취업난으로 인해 신앙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대학청년부 새벽기도모임 ‘홀리스타(HolyStar)’를 마치고 한 형제와 교제할 기회가 있었다. 평소 새벽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회사로 향하던 형제였다. 웬일인지 8시가 넘도록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웬일로 이 시간까지 남아있냐?”는 나의 물음에 “오늘은 회사 2차 면접이 있어서 다니던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오전 출근시간을 미뤘다”고 답했다. 그는 평소 수입과 업무시간의 상관관계를 따져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다. 제법 관창은 수입을 손에 쥘 수 있고, 업계에서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신생기업에 1차 심사를 통과하고, 2차 심층면접을 기다리고 있었다.

눈에 고민이 서려있던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그 형제가 대답했다.

“안 그래도 지난번 심사 때 교회와 회사에서 동시 호출이 있을 때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고, 오늘도 같은 질문을 받을 것 같아요.”

그의 대답과 동시에 내가 말했다.

“OO야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다. 기업도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직원보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직원을 선발할 거야.”

대답을 듣기 무섭게 약속시간에 맞춰 가야만 했다. 가방을 챙겨 자리를 뜨는 그 형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후회가 밀려왔다.

“일단 회사에 들어가야 하니까 ‘회사가 먼저입니다’라고 하고 취업해서 그곳을 선교지로 삼고, 그 회사를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되라고 했어야 할까?”

그 형제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그가 듣고 싶었던 대답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후회했다. 내가 그 형제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은 아닌지 죄책감마저 들었다.

당시에 내가 읽고 있었던 책이 김영재 목사님이 쓴 <큐티면접법 면접:평범이 스펙이다>이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심각한 취

업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문제를 공감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고민에 휩싸였다. 그 형제의 면접을 위해 기도했다. 결과는 낙방이었다. 그날 저녁, 어김없이 공동체 리더십 모임에 나온 그 형제를 보고 죄책감과 미안함에 눈물 흘렸다. ‘교회나 회사냐’는 질문에 깔끔하게 ‘교회’라고 하고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결단하게 하셨다. 3포, 5포, 7포, 9포 세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와 함께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서 받게 되는 불편과 불이익은 축복이며,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실패는 또 다른 기회다. 안전함과, 평안함, 안락함을 버리고 거룩한 불편함과 거룩한 불이익을 선택하며 지금도 취업전선과 직장에서 선한 영적전쟁을 치루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그들이 모임 11개 대학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푸드트럭 사업에 선정된 영어예배와 사단법인 나누미.

소외계층 찾아갑니다

영어예배와 사단법인 나누미, 푸드트럭 운행

온누리교회 영어예배와 사단법인 나누미가 현대자동차에서 지원하는 푸드트럭 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초 온누리교회 영어예배와 사단법인 나누미는 소외계층을 찾아가 섬기기 위해 현대자동차에서 지원하는 푸드트럭 사업에 지원했다. 300개 팀 중에 3개 팀을 선정했는데 온누리교회 영어예배팀과 사단법인 나누미가 포함됐다.

푸드트럭에서는 간단한 조리도 가능하다. 앞으로 온누리교회 영어예배와 사단법인 나누미는 쪽방촌을 돌며 무료급식 봉사를 할 예정이다. 쌀과 부식 등도 전달할 계획이다.

영어예배(OEM)와 사단법인 나누미는 6년째 서울역에서 노숙자 무료급식 사업도 하고 있다. 의식주 해결이 어려

운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주고 싶어서다.

매주 셋째 주 토요일이면 온누리교회 영어예배 자원봉사자 35명이 어김없이 사단법인 나누미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봉사를 간다. 300명 이상 되는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다.

홍성인 목사는 “노숙자들을 만나면 냄새도 나고, 무서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천사들이라고 부른다”면서 “봉사를 할 때마다 감동이 있고, 도전을 받는다”고 말했다.

온누리교회 영어예배와 사단법인 나누미를 후원하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사단법인 나누미는 김해연 총괄시설장 부부가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년

동안 시설비를 내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했다. 살던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해야 할 지경이었다. 김해연 총괄시설장 부부는 6개월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지냈다. 그런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내색을 하지 않았다. 김해연 총괄시설장은 남편 박종환 이사장과 기도 끝에 온누리교회 영어예배의 문을 두드렸다. 이 부부의 소식을 들은 영어예배가 큰 감동을 받고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이사연이 사랑의교회 영어예배팀에 전달됐다. 그때부터 사랑의교회 영어예배 뉴하비스트 팀과 타교회 소속 주발리 팀도 매주 봉사하고 있다.

사단법인 나누미는 2014년 6월 법인 인가를 취득했다. 1999년 9월부터 지금까지 노숙인과 쪽방촌을 돌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축하합니다 7월 세례자

■서빙고	문인안 140707	이명준 장선덕	이영란 871212	이서우 140115
강현수 730710	문다나엘 유미희	이찬희 140805	이재인 460915	이용석 박혜연
박미경 590604	성지은 140509	이성진 김혜진	이정은 790507	이하민 141010
박서연 560830	성안정 장현미	정선호 140501	장복순 350817	이대은 배선희
박진재 410626	성하람 140419	정지찬 이가영	정정자 371219	이하윤 130917
소미현 821126	성광민 정보경	▷ 입교	조능식 540715	이승화 우지은
심정숙 580121	신서윤 140912	심창빈 930305	▷ 유아	▷ 입교
이성엽 720812	신승준 마혜진	이해찬 961114	고유원 140103	김종승 820711
임주연 730601	양 준 140814	정성재 960421	고동일 김희정	정주환 770122
정성하 981109	양승민 박상연		김민 140103	
차지혜 811016	윤하윤 131201	■양재	김현철 강연옥	■특별한초대
표은정 760818	윤환진 안소영	강희수 771109	김려원 140826	김은희 851126
▷ 유아	유지인 131210	구교열 531015	김형민 신지은	복선원 810307
고도윤 140502	유재준 장현옥	김지영 890928	남도현 140515	▷ 입교
고현정 지민선	윤하영 131108	박경수 600712	남규송 임선희	김성구 820503
김도준 140710	윤성원 차현주	백병철 781206	신예섭 140806	
김형진 김묘희	이지우 140309	안정우 790326	신영진 최희경	
김세은 140604	이재준 나자영	유효섭 740324	안서현 140318	
김태균 김수	이지유 140818	이수민 900608	안정우 윤하나	

평양노회 목사후보생고시 공고

일시: 9월 22일(목) 오후 1시 장소: 방주교회서초구방배2동 425-2
첫 응시자: 청원서, 이력서(사진첨부),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세례교인증명서, 당회장추천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당회장추천서·세례교인증명서: 교회에서 발급함.
세례교인증명서: 세례 받은 교회에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발급(등록교인 한함)
재응시자(유효기간 3년): 청원서상단 불합격날짜, 재시표는 삼시 기록, 이력서 각 1부 서류제출 마감: 8월 22일 오후 5시, 서빙고 목회지원실 방문접수
문의: 김경렬 간사(02-3215-3234)

아트비전, 9월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 참가

작가 14명 참가 ... 8월 10일까지 소품전도 열어

온누리교회 미술선교회 아트비전 이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이하 KCAF) 2015’에 참가한다. 온누리교회 뿐만 아니라 사랑의교회, 영락교회, 지구촌전문인 미술선교회, 샘미술선교회 등 크리스천 작가들이 대거 참가한다. 온누리 아트비전 소속 작가 14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현재 필그림하우스 솔로몬갤러리에 서는 KCAF 소품전이 진행되고 있다.

8월 10일까지 열리는 소품전에는 온누리 아트비전 소속 정미경, 이남희, 권민진, 문혁훈, 심은하, 이미란, 최은정, 문수영, 선우미숙, 신수하 작가가 참가하고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KCAF를 위한 영성수련회가 지구촌전문인미술선교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이동원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눴다.

문의: 황혜성 팀장(010-4876-2354)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안전관리분과위원회 보험가입 유의사항 발표

안전관리분과위원회에서 보험가입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보험가입 유의사항은 아웃리치를 비롯한 교회 각종 행사에 참가할 때 위험에 대한 담보용으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성도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내용들이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원하는 조건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목적하는 비와 가장 근접한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인 보험금 수령 등이 가능하다. 보험을 가입할 때 조건보다 가입 여부에 관심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관리분과위원회가 발표한 보험가입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의 종류

- 1) 해외 아웃리치: 해외여행자보험
- 2) 국내 아웃리치: 국내여행자보험, 자동차 종합보험*

*공공 교통수용구외에 버스, 승용차 이동시 반드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 보장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 외에 위자료 등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2. 보험 가입 담보 내용

- 1) 국내: 사망후유장애(상해, 질병), 의료비(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 2) 해외: 국내+해외의료비, 항공기납치, 특별비용

위의 담보를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특별 약관을 첨부할 수 있다.

3. 보험가입 유의사항

- 1) 반드시 약관을 교부받고 담보내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확인 후 자필서명
- 2) 담보별 가입금액,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등 확인
- *보험사 plan별로 금액을 제시함으로 설명을 듣고 적절한 금액으로 가입
- 3) 여행기간과 보험기간의 일치여부, 여행목적지 일치여부 확인
- 4)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고지 의무)
- 5) 선교여행이나 체험 아닌 전문적인 스포츠(암벽등반, 스쿠버, 다이빙)로 인한 상해는 보상되지 않음. 교회나 건물 개보수작업 등 위험을 동반한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보상여부 확인하고 가입하여야 함.

4. 기타

- 1) 해외에서 치료 받았을 때는 현지 의사 진단서, 처방전, 치료비명세서, 영수증 반드시 제출
- 2) 휴대품 파손·분실했을 때 현지 경찰, 공항안내소, 호텔프런트 확인서 등 증명서류 필요
- 3) 보험사마다 담보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복수 비교견적
- 4) 사고발생시 사고 통보할 수 있는 현지의 연락처 확인

제1059호 | 2015년 8월 2일(주일)

■ 세례 간증 (성인)



팔십 평생 불공드리던 내가 회개했다

/ 장복순 성도(서초B공동체)

나는 150년 동안 계승되고 있는 판소리 종가집 며느리로 살아왔다. 우상숭배에 정성을 다하는 시어머니의 영향으로 염주를 손목에서 떠나보내지 않았다. 나는 우상 숭배자였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기도했다. 온 가족이 스님으로부터 법명을 받기도 했다.

같이 살고 있던 며느리가 1년 전부터 온누리교회에 다니면서 집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손주 택수와 연수가 차례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 뒤를 이어 나도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온 집안 식구들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과 하나님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주일이면 온 식구가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처음에는 성경말씀과 기도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일대일 제자 양육도 미루고 있었다. 어느 날 며느리의 권유로 수요일에 열리는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석하고, '일대일 제자양육'도 시작했다.

나는 권사님으로부터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게 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아야한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갔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동반자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세례를 받게 되었다. 팔순의 나이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반석과 같은 믿음 생활을 배워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크리스천이 되도록 계속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이다.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팔십 평생 불공드리던 내가 회개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목사님과 권사님, 시니어 아카데미 가족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싶다. 그들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다.

■ 세례 간증 (유아)



서우가 아멘이라고 외친다

/ 이서우(이용석, 박혜연 부부)

우리 부부는 결혼 전부터 역학과 사주철학에 정통한 지인으로부터 임신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지인은 우리 부부에게 임신을 위해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었다. 항상 몸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지인의 말을 의식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결혼하고 한 달 남짓한 어느 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선물로 보내주셨다. 미신과 우상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닫게 하셨다. 아이는 열 달 동안 큰 문제없이 잘 자라났다. 23시간 진통을 거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처럼 우렁차게 울지 못했다. 23시간이나 되는 오랜 출산과 정을 보내면서 아이가 힘이 들었는지 무호흡과 발열 증세를 동반한 합병증이 생겼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기지 못하고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하루에 30분씩 변화가 허용되었다. 3일 동안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힘들게 숨쉬고 있

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눈물과 기도, 가족들, 순식구들의 중보기도로 아이는 건강을 되찾았다.

그 아이의 이름이 서우다. 서우가 말을 하려고 할 즈음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알려주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아멘이라고 말을 하도록 알려주었다. 서우는 십자가나 교회를 보면 아멘이라고 외치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행동을 한다. 교회와 십자기를 따로 알려준 적도 없는데 길거리에서 십자기를 보기만 해도 서우는 아멘이라고 외친다. 처음에는 서우가 하는 이 행동이 신기하고 놀라웠다. 엄마와 아빠를 제외하고 아멘이라는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상황에 맞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육아를 핑계로 나태해진 신앙생활과 주님과 멀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육아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 같았다. 그런 내가 서우를 보면서 회개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서우를 통해 우리 부부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다. 서우가 외치는 아멘 소리가 우리 부부를 회복시켰다.

■ 차세대 여름캠프 후기



밖에는 장대비가, 집회장에는 성령의 단비가

/ 이성자 성도(양재 고등부 코치)

2015 여호수아 캠프가 드디어 막 올랐다. 유난히 덥고 습한 날씨에도 학생들은 이랑 곳하지 않았다. 여호수아처럼 순종과 승리의 합성이 커졌던 2박3일이었다. 캠프가 열릴 때까지 교사들의 릴레이 금식기도와 프로그램 기획회의, 수차례 중보기도 모임이 이어졌다. 그 힘이 가장 컸다.

오프닝 예배는 노회태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로 시작했다. 학생들 모두가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 목사님은 눈물로 설교를 하셨다. 이심전심일까. 그 모습에 감동한 교사들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졌고, 집회장에는 성령의 단비가 장대같이 쏟아졌다. 이번 캠프에서는 학생들 공동체를 만들어 운영했다. 흥미진진한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가졌다. 고등부 교사들의 선택강의도 이어졌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발견했다. 모든 교사들이 고민하고, 기도한 만큼 성공적인 캠프를 할 수 있었다. 낯설고 씨실로 잘 짜인 섬유를 만드는 것 같은 멋진 시간이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하지 못한 한 학생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날 새벽, 한 교사가 빗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그 학생

을 데려왔다. 나도 같은 교사지만 그 열정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만남을 예비해두신 것이 분명했다. 학생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교사들의 마음도 읽을 수 있었다.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부모의 강요에, 친구 따라 강남 온 것처럼 앉아있는 친구들이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학생들을 만나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게 수년간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특권을 주셨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신의 아픔을 토해내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게 하셨다. 그 학생들이 찬송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며 기도했다. 하늘나라 보물들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이 외에도 이번 캠프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다. 학생들을 지도하고, 섬긴 교사들의 헌신도 잊을 수 없다. 내가 만난 하나님, 교사들이 만난 하나님을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차세대들이 만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란다. 이 소망과 고백들이 모여 승리의 합성이 되기를 바란다.

■ OBC 요한복음 과정을 마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 선우현정 성도

OBC 과정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남았었다. 이상하게 내가 OBC 과정에 참가하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겼다. 병원과 교회를 오가야 했다. 이번에는 이 징크스를 피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어김없이 병원과 교회를 오가야 할 일이 생겼다. 어머니께서 치료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5년 전 암수술을 받으신 상태라 치료료를 종합병원에서 해야 했다. 시간이 자유훈지 못했다. 그래도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줄줄이 생겨 몸과 마음이 지쳐 버렸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터져서 지독한 갈등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다. 내 마음이 지쳐갔다. 우울함과 무기력 속에 빠져버렸다. 순모임마저 결석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분명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확신하고 진행한 일이 나를 고난으로 몰고 갔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자책도 했다. 그렇게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갔다. 친구들은 내게 너무 지쳤으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의 시간을 가져보라고 권유했다. 너무 힘들어서 OBC 요한복음 과정을 중도 포기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OBC 요한복음 과정 강의 중에 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견딜만한 고난만 허락하신다고 하신 말씀에 위로를 받았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분명 피할 길을 열어 주시리라

는 믿음이 생겼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조금씩 절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치료치료도 예상보다 기간이 단축되었다. 하나님은 내가 우려했던 일들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물론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언제 돌발사태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 늘 긴장해야 했지만 조원들의 중보기도가 많은 힘이 되었다.

손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루에 몇 번이나 사랑한다고 말하시나요?”라는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사랑한다는 말은 내게 참 어색한 단어다. 기도하면서 사랑한다고 한 기억은 가물가물하고, 찬양할 때만 했던 것 같다. 그 날부터 나는 매일 운전을 하면서도 큐티를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 보았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다. 무슨 일 있냐는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니 가족들과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삶이 따뜻해졌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의 시간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했지만 OBC 요한복음 과정을 통해 나는 다시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새 힘도 공급받았다. 이 모든 것들이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믿는다.



기고 함태경 CGNTV 경영기획본부장

중화권 방송선교의 꿈을 꾀다

CGNTV는 8월 6일 홍콩 창세(Creation)TV와 업무조인식을 갖고 중화권 미디어선교에 대한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앞서 5일에는 국제개발 NGO '더 멋진 세상'과의 협력 시스템인 홍콩 CGN World 설립 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CGNTV는 홍콩 현지교회와 선교기관, 신학교 등과의 협력모델을 만들어가고 창세TV, 대만 GOODTV 등 중화권 미디어 기관들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 및 화교권 네트워크를 넓혀나갈 것이다. 하반기에는 CGNTV, 창세TV, GOODTV, 인도네시아 인도비전(Indovision)과 더불어 ACMC(Asia Christian Media Conference)를 갖고 미디어선교의 지평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광둥어 말씀강해, 홍콩 신학교 세미나 콘텐츠 허입과 중국 대륙 목회자들을 위한 신학 콘텐츠 확보, 홍콩에서 개최되는 집회와 컨퍼런스의 공동 기획 및 촬영, 중화권 영상 소스의 다양화, 중국과 홍콩에 대한 뉴스 제작, 중화권 특집 제작, 한국·대만·홍콩 등지 중국인 시청자 모니터링 활동 등 사역 규모와 영역이 늘어날 수 있다. 2008년 설립된 타이베이제작센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CGNTV는 타이베이제작센터 설립을 통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쉼 없이 방송되는 위성 및 모바일 중문채널을 활용한 중화권 선교를 시작했다.

2009년에는 우창(武昌)교회 등 대만 내 네트워크를 더 확장해나가는 한편 2011년부터 프로그램 더빙과 간체자 자막 등 중국 대륙상황에 맞는 편성전략을 구사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삼천년신학원의 강좌, 2013년에는 China Soul의 웬즈밍(遠志明) 목사 말씀강해와 다큐 등 미국 등 전 세계 중화권으로 콘텐츠 허입 대상이 확대됐다. 서울 본사 글로벌 콘텐츠국 내 중문제작팀은 대만제작센터와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 허입물을 늘리고, 양질의 번역자,

성우들을 다수 확보하고 자체 SB제작 능력도 갖추게 됐다. CGNTV는 올해 '중화권 선교교육방송'이라는 정체성 강화를 통해 현지 기독교방송국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목회자, 신학생을 위한 교육 세미나의 편성 확대, 교육 콘텐츠 기획 편성, 청소년 성경공부를 위한 프로그램 편성과 차세대 프로그램의 시간대 이동 등으로 교육콘텐츠를 대폭 보강했다. 미국 템플대 중국역사 박사인 루이스 벨코프의 조직신학 강좌, 대만 성광신학교 박사과정 'e-시대의 가정사역과 교회성장' 강의 등 앞으로 싱가포르 화교교회, 인도네시아 화교교회, 홍콩교회 및 크리스천 제작사와의 네트워크 확대 및 출연자 섭외, 모니터링 요원 확보, CGNTV 홍보 등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중국판 유튜브 '요우쿠(優酷)', 투더우(土豆) 등을 활용해 중국에서도 쉽게 CGNTV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CGNTV는 중화권 미디어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독교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도 중국인의 정서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 모든 중국인이 공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CGNTV는 문화선교 공간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미디어선교가 중국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 또한 실로 광범위하다. 신학교육과 전도, 양육 시스템의 미디어화, 교회 사역자(목회자 포함)들을 위한 맞춤식 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의 미디어화,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단 등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미디어화, 교회음악 사역과 주일학교 사역의 미디어화 등 보다 지속 가능한, 장기 계획과 인내심을 갖고 협력해나간다면 미디어선교는 '중국인의',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을 위한' 기독교를 중화권에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권사칼럼 고유희 권사(강남C공동체)

주님과 동행하는 석양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말이다. 우울하고, 고독하고, 허무함을 느낄 때 애원하고, 때로는 절규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다.

“제 허리를 올곧게 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근 내 허리가 반듯하게 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며 어렵사리 살아가는 노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지금껏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였다. 지금 나는 허리가 아파서 가까운 친구들과 걷는 것도 꺼리고 있다. 나의 자존감은 여지없이 구겨졌고, 불면증까지 심화됐다.

유능한 의사들에게 각종 첨단 검사를 통해 진료를 받았고, 지인들의 소개로 다양한 치료도 받았지만 나의 척추 협착증과 퇴행성 관절염은 호전되지 않았다.

“지혜로운 치료의 길로 인도해주소서”라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곧바로 전화벨이 울렸다. 어느 전문 병원을 안내해주는 전화였고 나는 그 전화를 하 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의사 소견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시술을 선택했다.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기분도 좋았다. 영적인 교감임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치료에는 한계가 있었다. 상태가 나빠졌지만 불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겸손해졌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에서 도망자가 되어 헤매 때 고통 중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말씀이 기억났다. 또한 노아가 불가능한 일에 순종했고, 악한 것에 강함을 주셨던 말씀도 떠올랐다.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흑암과 빛이 동일한 차원이라고 들었다. 진정한 믿음은 불가능을 초월할 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지혜일 것이다. 성취 못한 나의 심신이 긍정의 길목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팔순 노구의 여생에서 가끔 석양을 느낀다. 석양, 그것은 화려하지만 일몰의 전조(前兆)다. 몇 년 전에 갔던 부안 채석강변에서 본 석양은 말 그대로 환상이었다. 참으로 아름다웠다. 노을의 붉은빛과 하늘의 회색구름이 흰선으로 조화를 이루는 광경이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타는 듯 한 해가 몸짓을 하면서 서서히 가리웠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다. 그 낙조를 숨죽이며 관상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석양은 더 평안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지혜와 믿음으로 감사와 행복을 느끼며 시공(時空)이 머무는 무한의 세상을 향해 가고 싶다.



신앙에세이 이기진 목사(강남C공동체)

그러므로 웃자!

구한말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밟았다. 그들은 조선인들을 채용해 한국 땅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 집에서 일을 하게 된 한 조선인이 말끝마다 “(아이고) 죽겠네!”를 연발했다. 선교사는 그 말을 들 때마다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을 파송한 선교본부에 보고서를 보냈다.

“이곳 조선인들을 보면 늘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들은 매우 신실합니다. 조선인들은 말끝마다 ‘주께 있네’를 외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다면 찬양 가사가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생명! 죽겠네. 능력! 죽겠네. 소망! 죽겠네. 주 안에 있네~”

이 이야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그냥 한번 웃었다면 됐다.

웃음은 부패하기 쉬운 마음의 방부제다. 세상을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품을 수 있는 세계관을 만들어 준다. 때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며 세상을 내 편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있다.

무엇보다 웃으면 건강해진다. 고대 그리스 의사 밀레투스(Miletus)는 웃음을 의미하는 헬리어 ‘겔로스(Gelos)’가 ‘헬로(Helo)’에서 왔고,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건강을 의미하는 ‘헬

스(Health)’라고 했다. 웃음은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근육을 강화시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공격하는 T세포를 증가시킨다. 인체 면역기능을 향상시킨다. 책 『질병의 해부』에서 노먼 커즌스는 ‘10분간 웃으면 2시간 동안 고통이 없으며, 수면제 없이 잠들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우리 몸의 650개 근육 가운데 231개가 웃을 때 움직인다. 웃으면 건강해진다.

웃음이 육체의 건강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건강에도 유익하다. 비본질적인 일에 집착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이들을 책망하실 때 예수님은 “눈 먼 소경이여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마 23:24)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하루살이는 아랍어로 ‘갈마(Galma)’이고, 낙타는 ‘갸나(Gama)’이다. 언어학에서는 이것을 애너그램(한 단어에 있는 철자들의 순서를 바꾸어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은 일종의 언어 비틀기를 통해 재치 있게 말씀하셨다. 성급한 시몬에게는 ‘육중한 바위’란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의 성격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베드로를 보면서 많이 웃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웃음을 늘 가까이 두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건

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은 아마도 웃을 힘조차 없는 사람일 것이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는 “만일 천국에서 웃음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가슴 속에 분노와 한을 품고 살아가는가? 상처 없는 이들은 없다. 더 큰 문제는 그 상처를 녹일만한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다. 웃음은 피곤한 인생에게 건네는 생수와 같다. 관계 속에 얽혀있는 긴장과 압박을 풀어주고 생의 여유를 갖게 하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웃자. 데일 카네기(Dale Carnegie)는 “즐거운 듯이 얼굴 가득 웃음을 지어라. 즐거운 듯이 행동하면 우울해지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그러므로 웃자.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쁘다.

한 집사님이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강술에다 골초예요. 그런데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오셨다. 나는 이렇게 대답해 드렸다. “모르긴 해도 빨리는 가실 겁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지금 웃어보세요. Smile!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보라, 얼마나 큰 사랑인가!

2절과 3절에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자녀 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2-3절).

1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는 단계입니다. 2절과 3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단계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받아들여주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여도 상관없습니다.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어도 자녀로 불러 주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은 자녀로 변화되도록 이끄십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 변화되게 할까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닮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닮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닮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고, 누군가를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닮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사랑은 소망을 낳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젠가 그분과 같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소망을 만들어내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한 순간에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도 그분과 같이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소망하게 하고, 그 소망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변화되어 갑니다. 처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때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4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6절).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낳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9절).

NIV 영어번역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Continue’라는 단어를 삽입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난 사람은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 DNA를 받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일 때는 부모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커갈수록 부모의 모습과 습관이 점점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가 된 우리들도 믿음의 초기단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씨가 있기에”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씨앗, 성령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 죄를 짓지 않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죄를 네 가지의 상태로 구분한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타락하기 이전 인간의 상태를 ‘아직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죄가 없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때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깨닫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에 있습니까. 대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요일 3:8).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감격하며 사는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정결함을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때 능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Talk Talk 열왕기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열왕기 19 : 므낫세, 요시아 그리고 일월성신

므낫세는 남유다의 19명 왕들 가운데 최악이었다. 그가 행한 우상숭배의 면모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악행의 규모는 허를 내두를 정도다. 열왕기 저자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왕하 21:11)고 말할 정도였다. 특히 므낫세는 ‘일월성신’ 숭배를 들여온 최초의 왕이다. 그것도 여호와와 성전 안 마당에 버젓이 일월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일월성신에게 분향하는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도 세웠다. 천체 숭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에서 행해지던 풍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도록 명령하셨다. 신명기 4장 19절, 17장 3-7절에 의하면 일월성신 숭배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일이었다. 이런 최악의 왕이 무려 55년을 통치했으니 나라꼴이 어떻게 되었을지 짐작이 간다.

그런데 그의 손자인 요시아는 할아버지가 행한 이 가증한 일월성신 숭배를 철저히 제거한다. 흔히 요시아를 종교개혁자라고 부른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아는 왕이 된지 18년이 되던 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들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 또 유다의 온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이끌어 언약을 갱신하기에 이른 대왕(왕하 23:3). 최악의 깊은 어둠에서 헤어나오는 순간이었다. 요시아는 언약갱신을 행한 후 전국에 걸쳐 모든 우상숭배의 흔적을 제거하는 개혁을 단행한다. 전국에 있는 산당을 헐어버리는 일은 물론 므낫세가 들어 온 일월성신을 폐한다. 또 그는 성전 가운데 있던 남창의 집을 헐었는데 이 남창의 집은 아세라를 위하여 여인들이 옷을 찢는 곳이었다(왕하 23:7). 여기서 옷이란 아세라 우상

에게 입히는 옷이다(“또 네 수 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겔 16:18). 즉 아세라는 옷을 갖춰 입은 목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아세라가 예레미야에 나오는 ‘하늘의 여왕’이라고 본다(렘 44:17-18 참조).

천체 숭배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요시아는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태양 수레를 불살라 버렸다(왕하 23:11). 그리스신화에서 아폴론이 세 마리의 말이 끄는 태양 전차를 모는 것처럼 주전 87세기 앗수르와 바벨론에서는 태양신 사마쉬를 숭배했는데 사마쉬는 말에게 명하여 마차에 신들을 태워 운반하도록 했다. 그래서 태양을 위해 드린 말은 태양신과 교류하는 중재자 기능을 한다고 보았고, 사람들은 이런 말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런 태양신 숭배와 관련된 말 제사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나단멜렉’이었는데, 이 나단멜렉의 집이 다른 곳도 아닌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 근처에 있었다.

또 요시아는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 세운 제단들’을 헐어버렸는데, 주전 7세기 지붕에서 천체를 숭배했던 일을 가리킨다. 요시아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와 스바냐도 이것을 언급한 바 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렘 19:13, 렘 32:29도 참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슥 1:5). 더욱이 일월성신을 숭배하는 일과 자녀를 더럽게 하는 일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열왕기하 23:10-12에서 인신제사 후에 태양신 말 숭배와 지붕 제단이 언급되는 것처럼, 예레미야

19:13에서 하늘 만상에 분향하는 일 다음에 인신 제사의 분거지였던 ‘도벳’이 언급되고 있다. 이런 형식은 예레미야 7:30-8:3에서 똑같이 나타난다.

성경은 증언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을 만드시고,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셨다고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 대신에 일월성신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늘의 일월성신을 연구하다 참된 빛을 만난 사람들이 나온다. 동방박사가 그들이다. 동방박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해가 뜨는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란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동쪽은 아마도 페르시아(오늘날의 이란)를 가리키는데, 박사로 번역된 헬라어 ‘마고이’는 페르시아의 사제들로서 고대 동양의 지혜를 대변하는 자들을 뜻한다. 이들은 천문학, 철학, 심지어 마법에까지 능통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별을 관찰하다 ‘그의 별’, 즉 ‘유대인의 왕(메시아를 의미)’의 별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별이 아닌 그 별에게 경배하기 위해 먼먼 길을 떠난다. 마침내 그 별을 만나 앞드려 경배한다. 그들은 누구를 경배해야 할지를 깨달은 자다. 주후 4세기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무적의 태양(Sol Invictus)’을 섬겼던 이전의 로마 황제들과는 달리 참된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개종한다. 그 후 12월 25일은 ‘무적의 태양’의 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 되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빛이시다.

※ Talk Talk 열왕기 연재를 마감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글을 읽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